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51:1-3
2026 년 8 월 23 일 오전 11 시

한 사람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 주여 도우소서 >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했을 때, 모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 세, 3 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는 1 세대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또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현실적인 형편 때문에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박수장”이라 불렸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박수장 벨드사살아…”(단 4:8-9). 다니엘은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을 사용했고, 바벨론 궁정의 지혜자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박수”에 해당하는 원어 חַרְטֹם (ḥartôm, 하르툼)은 궁정에서 꿈과 징조를 해석하는 지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보인 후 높임을 받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단 2:48).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각각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받았고,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단 2:49).

1. 돌아온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귀환 칙령을 발표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고향을 잊거나 하나님을 망각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그러나 오랜 세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삶의 자리가 있었기에 귀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잊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여러 지역에 정착하여 유대인 공동체, 곧 디아스포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에 3:8).

하만이 멸절하려 했던 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이 있던 수산 성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그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모르드개와 에스더였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에 2:5). 모르드개는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양육했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야기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제국 안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포로의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사 51:1).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황폐한 성전 터, 가난과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돌아왔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가혹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각자의 성읍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스 3:1). 귀환 후 정착한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 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 못한지라”(스 3:6). 그들은 먼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읍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스 3:7). 일꾼들을 고용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하며 성전 재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의 반응은 세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스

3:12). 첫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 사이에서 울었고,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2. 황폐함 속에서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스 4:4). 사마리아 인들은 유다 백성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관리들을 매수하여 공사를 막았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스 4:5). 결국 성전 재건은 오랜 기간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스 4:24).

여러분, 이 귀환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사명을 품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 넉 달이 걸렸다고 기록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스 7:9).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오늘날 텍사스 달라스에서 콜로라도 덴버까지 가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 길에는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와 강을 건너야 하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여정을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폐허가 된 성전 터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돌아왔건만,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귀환한 유다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관리들에게 줄 뇌물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맞설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무력감과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사 51:2).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의 시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민족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황폐한 시온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온은 황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황폐한 곳도 에덴 동산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3 절). 지금은 눈물과 탄식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놀림에 놀라지 말라”(7 절).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대적의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대적자들이 강해 보이고 날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옷 같이 좁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 같이 좁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8 절). 인간의 권세는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12 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인간이 아닙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13 절).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예루살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17 절).

3.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결과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거리 모퉁이에 쓰러질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네 아들이 곧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20 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신 것은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을 불드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22 절).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큰 잔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옮기십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앞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23 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니다. 대적자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했으며, 그들을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2 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민족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노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라에게는 자녀를 낳을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복을 주셨으며,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황폐한 시온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의 기초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우셨고,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황폐한 시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너무 작아 보이고,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작은가를 보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남은 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놓인 현실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작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황폐한 시온을 예텐과 같이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자리도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사람에서 시작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